

# 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특징

---

탁효정

국립순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조선불교사 전공

bellaide@naver.com

---

- I. 머리말
  - II. 조선후기 서울 지역의 비구니 분포
  - III. 비구니 거주 사찰과 법맥
  - IV.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특징
  - V. 맺음말
-

## I. 머리말

---

이 글은 조선후기 한성부와 도성 인근 즉 오늘날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비구니 사찰의 분포와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조선시대 한양 지역은 비구니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지역 중의 한 곳이다. 도성과 인근 지역은 조선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된 곳이었고, 불교를 깊이 신앙한 왕실과 사대부 및 일반민에게는 신행을 지원할 승려와 사찰이 필요했다. 하지만 유교적 강상윤리가 강화되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불교신자들의 신행 활동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찰 출입이 실절(失節)로 간주될 만큼 여성 불자들의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도성 안팎의 비구니사찰은 한양 지역 여성들의 신행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조선전기까지 한양 도성 내에는 다수의 비구니사찰이 존재했다. 왕실의 비호 하에 운영된 정업원·안일원 외에도 약 20여 개의 사찰이 도성 안팎에서 운영되었으나 성종 대 23개의 비구니사찰 중 20여 개가 철폐되고, 현종 대에 자수원과 정업원이 철폐되면서 도성 안의 비구니사찰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성과 인접한 동대문과 남대문 밖에는 비구니사찰들이 여전히 운영되었다. 도성 내 비구니사찰이 모두 철폐된 후 조정 신료들은 도성 밖의 비구니사찰까지 철폐할 것을 요구했지만 왕실의 비호로 계속 존속되었다.

조선시대 비구니 관련 자료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비구니들이 직접 남긴 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문서나 화기 등에 남아 있는 단편적인 내용을

---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6448).

통해 비구니사찰의 실체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각종 불교 관련 자료에 남아 있는 비구니들의 법명을 수집 정리하여 이들의 소속사찰과 활동을 분석했다.

조선시대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 연구는 주로 왕실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사료에 정업원 등에서 활동한 왕실 비구니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비구니사찰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인데, 조선시대 비구니들이 직접 남긴 글이 거의 없고 이들과 관련된 사료도 지극히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비구니사찰과 관련한 연구로는 도성 밖 4승방을 다룬 김응철의 「정업원과 사승방의 역사로 본 한국의 비구니 승가」가 대표적이다.<sup>1</sup> 이 논문은 그동안 구전으로 전해져온 서울 비구니 사찰의 연원을 역사적 사료와 근현대 비구니들의 구술을 토대로 정리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옥수동 미타사를 필두로 비구니사찰의 불상 복장과 불화 화기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미술사 영역에서의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다.<sup>2</sup>

조선후기 서울의 비구니사찰은 4승방이 대표적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사찰 명칭이나 규모, 활동 등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도성 인근 비구니사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접근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비구니 명단을 토대로 비구니들의 소속

- 
- 1 김응철, 「정업원과 사승방의 역사로 본 한국의 비구니 승가」, 『전통과 현대』 1999년 봄호(1999) 70~85쪽.
  - 2 문명대, 『청룡사: 靑龍寺의 歷史와 文化』(청룡사·(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유근자, 「서울 옥수동 미타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의 복장 유물 분석과 양식 특징」, 『불교 문예연구』 17(2021), 339~384쪽; 유경희, 「중남산 미타사 극락전 불화를 통해 본 19세기 원당의 불화」, 『강좌미술사』 59(2022), 195~224쪽; 편나영·박윤미,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 복장직물의 특성」, 『禪文化研究』 4(2023), 245~284쪽.

사찰, 활동 내역, 사찰 간 인적 물적 교류, 법맥의 전승을 확인하고,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운영실태를 고찰하겠다. 이를 통해 조선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서울 비구니승가의 전통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 Ⅱ. 조선후기 서울 지역의 비구니 분포

### 1. 비구니 명단 수집 자료

조선시대 서울 지역 비구니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시대 및 근대에 수집·작성된 사지와 고문서, 불화 화기, 불복장 발원문 등을 조사했다. 가장 먼저 확인한 자료는 『봉은본말지(奉恩本末誌)』, 『종남산미타사약지(終南山彌陀寺略誌)』 등 근대기에 발간된 사지이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사지 중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과 관련한 사지는 전무하며,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봉은본말지』 등에 일부 내용이 실려 있다. 『봉은본말지』는 1943년 안진호가 집필했지만 출간되지 못하다가 1994년에 원고의 일부가 월간 《다보(多寶)》를 통해 소개되었다. 하지만 발견 당시에 옥수동 미타사, 청룡암(청룡사), 진관사 등 서울의 대표적인 비구니사찰이 포함된 '제2편 경산의 사찰'의 상당 부분이 소실된 상태였다.<sup>3</sup> 그래서 현전하는 『봉은본말지』 내용으로는 서울 지역 비구니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제강점기에 비구니사찰에서 단독으로 발간한 사지는 옥수동 미타사<sup>4</sup>

- 
- 3 대한불교진흥원, 《多寶》, 불기 2538년 여름호(1994)~불기 2539년 가을호(1995)
  - 4 서울의 대표적인 비구니사찰인 옥수동 彌陀寺와 보문동 彌陀寺의 사찰명이 동일해 이 글에서는 두 사찰의 구분을 위해 '옥수동 미타사'와 '보문동 미타사'로 구분해 표기한다.

의 『종남산미타사약지』가 유일하다. 1942년 옥수동 미타사 주지 송전경각(松全敬覺)은 안진호에게 의뢰해 미타사의 역사를 정리한 『종남산미타사약지』를 편찬했다.<sup>5</sup> 또한 미타사는 최근 성보문화재 수리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불복장 발원문들을 다수 공개했는데<sup>6</sup>, 그로 인해 여타 사찰에 비해 미타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옥수동 미타사 이외의 비구니사찰에 관해서는 사지의 내용만으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화의 화기와 고문서, 불복장 발원문 등에 남아 있는 비구니 명단을 추가로 수집했다.<sup>7</sup> 이 밖에도 이들 자료집에 실리지 않은 상량문, 불복장문서, 불상의 명문, 사찰 현판 형태로 남아 있는 불사 기록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 정리했다.

## 2. 서울 지역 비구니 분포

서울 지역 사지 및 고문서, 불복장, 현판 등에 실린 니승의 명단 가운데 1392년부터 1945년까지 활동한 범명을 정리한 결과, 총 19개 사찰<sup>8</sup>에서 활동한 882명의 니승 명단을 확인했다. 15세기 17명, 16세기 2명, 18세기

5 『終南山彌陀寺略誌』 서문.

6 미타사 성보문화재 보존위원회, 『彌陀寺 성보문화재 조사보고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2020).

7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편저), 『韓國의 佛畫 畫記集』(서울: 성보문화재연구원, 2011);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특별시 자료집』(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3); 문명대·김창균·이강근·최응천·한지연·유근자·김현정·주수완·오진희·조수연·박선영·김성희·한민주·권희선·문아리, 『朝鮮時代 記錄文化財 資料』(서울: 韓國美術史研究所, 2013).

8 고려시대부터 근대까지 비구니 명단이 확인된 서울 지역 사찰은 총 19곳으로 정업원, 봉은사(견성암), 화계사, 보문사, 청량사, 석불사, 환희사, 관음암, 옥수동 미타사, 개운사, 경국사,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흥천사, 수국사, 진관사, 안양암, 청룡사, 충국사이다.

48명, 19세기 355명, 20세기 초반(1901~1910) 23명, 일제강점기 373명, 조선~근대에 활동한 것은 분명하나 활동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니승(尼僧)은 64명이다.<sup>9</sup>

이 글에서는 그중 조선후기에 활동한 426명의 니승과 소속사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10</sup> 조선전기의 비구니 명단은 총 19명으로 데이터 수가 매우 적은데다 소속 사찰이 불분명하거나 범명 대신 내명부 직위 또는 성씨로만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글의 데이터에서 제외했다.<sup>11</sup>

조선후기 니승 426명 중 사미니는 37명, 행자는 2명이고, 나머지는 니(尼) 또는 비구니(比丘尼, 比邱尼)로 표기되었다. 426명의 명단 중 중복되는 범명을 정리하면 총 302명이다.

표1-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 명단

세기	문서명(작성 시기)	비구니 범명
18세기	(옥수동)彌陀寺 阿彌陀佛像 造成發願文(1707)	戒行 道義 道惠 妙盲 法贊 尙玄 善寬 守原 義性 義俊 淸輝 玄覺 弘仁
	乾隆九年甲子五月二十八日阿彌陀佛 大勢至菩薩改金化主比丘尼思信宗戒	思信 宗戒

- 9 보문사 대웅전에 있는 同參爲薦大施主 현판은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에 근대에 조성된 자료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 시주질에는 33명의 니승 명단이 실려 있는데, 이들 중 활동연대가 확인되는 니승들은 모두 1865년 대웅전 상량문과 1867년 보문사 묘승전 영산회상도와 지장시왕도 연화질에 실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 현판이 「동치4년 한양동삼각산보문사법당중건대시주」 현판과 함께 제작되었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 글의 데이터에 포함시켰다.
- 10 1844년에 제작된 「(옥수동)미타사 정수암 현왕도」 緣化秩에는 불사에 참여한 8명의 비구니가 확인되지만 범명이 기재된 부분의 마모가 심해 판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의 데이터에서 제외했다.
- 11 조선전기에 작성된 문건 가운데 비구니의 범명이 확인되는 문서는 2건으로, 1456년 조성된 「견성암 약사삼존불 발원문」과 1511년 「노산군부인 별급문기」이다.

세기	문서명(작성 시기)	비구니 법명
	發願文(1744)	
	(옥수동) 彌陀寺 阿彌陀佛像 改金願文(1757)	思信
	奉恩寺木釋迦佛坐像(1765)	文華 思信 祖明
	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1767)	大崙 法贊 思信 太熙
	(옥수동) 彌陀寺 觀世音菩薩像 造成發願文(1769)	廣位 大崙 德涵 道全 道天 得玢 得眞 夢堅 夢奎 瑞潤 守演 守澄 順眞 順聰 勝雲 宇文 翼宇 再英 智尙 智樞 彩言 彩有 彩欣 處明 慧雄
19세기	漢陽城外東部三角山普門寺極樂寶殿 重修上樑文(1824)	最雲 朗仁 元淑 善益 抱一 朗天 一弘 明植 永典 善淑
	(옥수동) 彌陀寺 沿革(1824)	大願
	(옥수동) 彌陀寺 編年(1824)	大願
	終南山彌陀寺無量壽殿初瓶記(1826)	幻信
	終南山彌陀寺無量壽殿初瓶記(1827)	大願 性受 忠悅 忠侑 幻順
	(옥수동) 彌陀寺 編年(1827)	幻信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 新建記 懸板(1856)	大錦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 新建記 懸板(1856)	明直 法信 尙曄 性覺 大庸 永慧 圓覺 宥奉 義寬 義讚 一性 讚喜 就允 包佩 義善
	京畿左道廣州修道山奉恩寺華嚴板殿 上樑文懸板(1856)	萬興 宥奉 度淨 定敏
	奉恩寺改金幀畫施主目錄懸板(1857)	妙允 時洽 法品 就允 大庸 宥奉 一性 就允 太一
	普門寺 大雄殿 東治四年 上樑文(1865)	道植 道學 命碩 妙寶 性默 守一 佑瞻 有法 宥奉 宥變 應碩 義堅 一玉 定義 眞宗 處學 體合 泰植
	普門寺 大雄殿 同參爲薦大施主懸板(1865 추정)	道植 道學 頓洪 明釋 妙寶 敏慧 普讚 富喜 宣圓 性默 守一 永潭 永合 永洪 圓教 宥法 宥奉 宥攝 宥玉 應碩 義堅 義性 日玉 定潭 定義 眞宗 體仁 體學 體合 致律 泰植 惠完
	(옥수동) 彌陀寺 金寶菴 神衆幀(1866)	奉國 奉海 富榮 永謨 義沾
	普門寺 極樂殿 靈山會上圖(1867)	道息 道鶴 命釋 命沈 妙寶 聖默 世逢 與吉 永澤 永合 宥峯 宥奉 宥宗 應釋 意聖 日玉 追宗 太息 慧鶴
普門寺 묘승전 地藏十王圖(1867)	道植 性華 宥奉 布日 學性	

세기	문서명(작성 시기)	비구니 법명
	靑龍寺 神衆圖(1868)	永咸 義極 淨基
	靑龍寺 七星圖(1868)	永咸 義極惟玉 淨基
	(옥수동)彌陀寺 금수암 무량수전 山神圖(1869)	得㉠ 智和
	京畿右道楊洲牧地三角山興天寺寮舍 重勅記文懸板(1870)	宥奉
	萬壽寺 神衆圖(1871)	大欣致壁 勝喆 永壽 應壁 取允善弘
	(보문동)彌陀寺 大雄殿 神衆圖(1873)	妙義 永㉠ 元妙 智㉠
	(보문동)彌陀寺 阿彌陀會上圖(1873)	妙宜 法林
	(옥수동)彌陀寺 沿革(1873)	性欣
	終南山彌陀寺重修記(1873)	性欣 義還 寬慧 應湖 致弘 普錫
	(옥수동)彌陀寺 編年(1873)	性欣
	(보문동)彌陀寺 三聖閣 七星圖(1874)	○妙 ○祐 ○合 明碩 圓教
	三角山 津寬寺 香積菴 山神圖(1882)	○一 桂典 道行 萬德 普○ 養奉 仁亨
	(옥수동)彌陀寺 金水庵 無量壽殿 七星圖(1883)	普錫 性欣 守安 義還 致弘
	(옥수동)彌陀寺 大乘庵 無量壽殿 觀音菩薩圖(1884)	定允同
	(옥수동)彌陀寺 編年(1884)	奉寂 就義
	(옥수동)彌陀寺 극락전 神衆圖(1887)	萬保 妙正 奉寂 富弘 性律 性欣 永謚 取喜 致海 致弘
	(옥수동)彌陀寺 극락전 阿彌陀會上圖(1887)	萬保 妙正 奉寂 性律 取喜
	(옥수동)彌陀寺 極樂殿 地藏十王圖(1887)	萬保 妙正 奉寂 性律 取喜
	(옥수동)彌陀寺 극락전 七星圖(1887)	妙正
	(옥수동)彌陀寺 극락전 現王圖(1887)	妙正
	보문사 佛糧獻納碑(1887)	處岑

세기	문서명(작성 시기)	비구니 법명
	楊州終南山彌陀寺重建兼丹牘記 (1889)	敬文 敬福 敬悟 戒性 戒憲 戒訓 九吉 今龍 頓悟 頓五 頓祚 滿寶 命吉 命芑 命錫 妙祥 妙釋 妙性 妙業 妙完 妙靜 妙合 妙賢 妙訓 寶積 寶合 福奄 福順 福業 奉南 奉寂 富榮 扶完 富弘 尙元 性律 世眞 順吉 順南 順卜 順奉 榮寢 五默 完亨 元益 尹南 應護 義遷 麟業 定安 正晔 正訓 宗玄 中賢 就義 致國 致五 致海 致弘 幸文 慧峯 惠正 興業
	(옥수동) 彌陀寺 沿革(1891)	信悟
	청룡사 신령각 獨聖圖(1891)	戒白
	(옥수동) 彌陀寺 編年(1891)	信悟
	奉恩寺靈山殿神衆圖(1895)	妙定 妙合 奉寂 富永 富洪 致海
	(옥수동) 彌陀寺 주지실 七星圖(1897)	萬保 玄國
	(옥수동) 彌陀寺 彌陀寺 칠성각 阿彌陀會上圖(1897)	萬普 玄國
	終南山七星殿改重修與幀畫佛事記 (1897)	萬普
	天藏山清凉寺重修記懸板(1897)	達弘 道門 道一 頓合 普演 奉心 性權 性周 永林 榮喜 元照 有藏 銀石 音全 應碧 應業 應元 慈海 正祚 宗隱 彩白 處完
	(옥수동) 彌陀寺 編年 1897	萬普
	靑龍寺 甘露圖(1898)	戒宗 法宥 應攝 在蓮
	(옥수동) 彌陀寺 極樂殿 甘露圖(1899)	妙正 奉寂 富弘 性律 性欣 永謙 取喜 致弘
	(옥수동) 彌陀寺 彌陀寺 칠성전 現王圖(1899)	頓奇 萬保 常心 雲文 宗協 重淳 玄國
	(옥수동) 彌陀寺 칠성전 神衆圖(1899)	萬保 常心 宗協 重淳 玄國
	(옥수동) 彌陀寺 沿革(1899)	妙定 應合
	(옥수동) 금수암 무량수전 神衆圖(1900)	廣典 大福 頓悟 妙峰 妙性 普業 雲涉 致洪
	(옥수동) 彌陀寺 금수암 무량수전 現王圖(1900)	廣典 大福 頓悟 妙峯 妙性 普業 雲涉 致弘
	(옥수동) 彌陀寺 無量殿 阿彌陀佛幀(1900)	廣典 大福 頓悟 妙峰 妙性 普業 雲涉 致洪

세기	문서명(작성 시기)	비구니 법명
	석불사 神衆圖(奉安于終南山彌寺藥師殿) (1900)	戒憲 善花 應合 昌仁 興南 戒憲 奉積 應合
20세기	청룡사 심세불상(1902)	性基 春根
	청룡사 산령각 山神圖(1902)	忠根
	(옥수동) 彌陀寺 관음전 千手千眼觀音菩薩圖(1905)	大弼 萬補 妙完 妙淨 奉口 應合 淨荷 取喜 致海 玄國
	(보문동) 彌陀寺 향로전 觀音菩薩圖(1906)	敬文
	守國寺 掛佛圖(1908)	妙允 雲門 定荷 致海 玄國
	守國寺掛佛幀畫金剛幡佛事記(1908)	雲門 定荷 致海 玄國
		총 426명

〈표1〉은 조선후기에 활동한 426명(중복명 포함)의 명단을 문서별로 정리한 것이다.<sup>12</sup>

18세기 니승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은 총 7건으로, 대부분 옥수동 미타사와 관련한 문서들이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자료는 1707년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상 조성발원문과 1744년 개금 발원문이다. 1765년에 작성된 봉은사 목조석가좌상 복장문은 처음 봉안될 당시부터 봉은사에 있던 불상의 복장문서이지만 이 불사에 참여한 동참화주 비구니 사신, 문화, 조명은 모두 옥수동 미타사에 소속된 니승들이었다. 따라서 18세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48명의 니승은 모두 옥수동 미타사에 소속된 승려들이며, 다른 사찰에 소속된 비구니의 활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19세기에 활동한 니승의 명단은 총 355명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현전하는 불화나 중창기의 대다수가 19세기 이후에 조성된

12 하나의 문건에서 니승이 복수의 소임을 담당해 2번 이상 법명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1건만 기재했다.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에는 옥수동 미타사뿐만 아니라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청룡사, 청량사 등 여러 사찰에서 다양한 비구니들의 활동이 확인되는데, 이를 통해 도성 밖 4승방이 18~19세기를 거치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비구니사찰로 자리매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의 니승들의 활동을 담당 소임별로 살펴보면 공사(供司) 9명, 공양주 1건, 다각(茶角) 6건, 도감(都監) 23건, 별좌(別座) 22건, 별공 21건, 정통(淨桶) 2건, 인권(引勸) 1건, 지전(持殿) 3건, 화주(化主) 64건이고, 나머지는 시주로 참여하거나 소임 없이 동참자 명단으로 실렸다.

### Ⅲ. 비구니 거주 사찰과 법맥

조선후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니승 426명의 활동 사찰은 총 9곳으로, 옥수동 미타사 234명<sup>13</sup>, 보문동 미타사 12명, 보문사 85명, 봉은사 37명, 청량사 27명, 청룡사 14명, 수국사 9명, 진관사 7명, 홍천사 1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장에서는 니승의 활동이 확인되는 사찰에 실제로 비구니가 거주했는지, 비구니들의 독립적인 수행공간이 유지되고 있었는지 확인하겠다. 이와 더불어 사료상에 나타나는 조선후기 비구니들의 계보와 오늘날 해당 사찰에서 전승되고 있는 비구니문종의 법맥을 비교 분석해 조선후기 비구니승가의 전통이 현재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3 마포 석불사에 소장된 신증도와 아미타회상도에서도 9명의 비구니 명단을 확인했지만, 이 불화의 원 소장처가 종남산 미타사이므로 석불사 불화에 기재된 9명의 니승은 옥수동 미타사의 승려로 분류했다.

## 1. 두뫇개승방 미타사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한 미타사는 조선시대에 두뫇개승방으로 불리던 사찰이다. 『종남산미타사약지』를 비롯한 자료에 나타난 옥수동 미타사의 니승은 총 234명이다. 조선후기 426명의 니승 범명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옥수동 미타사의 소속으로 조사된 것은 미타사의 사세가 상대적으로 컸던 요인도 있지만 비구니사찰 중 유일하게 미타사가 사지를 편찬했고, 최근 다수의 불복장 문건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종남산미타사약지』(1942)에 수록된 자료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건은 1824년에 작성된 「종남산미타사무량수전초창기(終南山彌陀寺無量壽殿初瓶記)」이다. 하지만 최근 미타사의 불상 복장에서 나온 문서들은 이미 18세기 초부터 미타사에서 비구니들이 활동했음을 알려 준다. 미타사 아미타불상 내에서는 1707년 조성발원문, 1744년 개금 원문, 1757년 개금 원문, 1917년 아미타삼존상 개금 원문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 가운데 1707년의 조성발원문에서는 14명, 1744년 2명, 1757년 1명의 니승 명단이 확인되었다.<sup>14</sup>

1707년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불상 조성발원문에는 “남양주 홍국사에서 약사불을 개금하고 석가여래를 새롭게 조성해 경성 외곽의 봉래산 쌍계사에 봉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는 불사의 대시주자인 상궁 김귀업(金貴業)과 함께 조상(造像) 대시주 비구니 법찬(法贊), 후령통(喉鈴筒) 시주 비구니 현각(玄覺)을 비롯한 비구니들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1707년 조성발원문만으로는 경성 외곽의 봉래산 쌍계사가 미타사의 전신인지 혹은 별개의 사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낙암당니수좌사신지부도비(洛庵堂尼首座思信之浮屠碑)」 비음(1767)에 실린 비구니들의 명단은 봉래산 쌍계사와

---

14 미타사 성보문화재 보존위원회, 앞의 책(2020), 62~70쪽.

종남산 미타암이 같은 법맥으로 이어지는 사찰임을 보여준다. 『유점사본말사지』에 실린 비구니 사신의 부도 비문에는 1707년 석가여래조상의 대시주자인 비구니 법찬이 종남산 미타암의 비구니 사신(思信)의 은사로 등장한다.<sup>15</sup> 종남산 미타암의 비구니인 사신의 부도비가 금강산에 조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지만, 이 부도에 등장하는 비구니들은 모두 종남산 미타암의 승려들이었다. 이로 볼 때 봉래산 쌍계사는 미타사의 전신이고, 쌍계사로 불리던 절이 1707년과 1757년 사이에 미타암으로 불리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707년 아미타불상이 조성될 당시까지만 해도 쌍계사는 비구 중심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석가여래조상 발원문의 연화질(緣化秩)과 본사질(本寺秩)에 실린 승려들은 모두 비구였고, 비구니 법명은 시주 명단에서만 확인된다. 이로 볼 때 쌍계사 본사에는 비구들이, 인근 사암에는 비구니들이 거주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이후 18세기 중반부터 미타사 운영의 중심이 비구니들로 전환되는 양상이 확인되는데, 1744년 아미타불상 개금 당시 사신과 종계(宗戒) 두 비구니가 화주를 맡았지만 지전(持殿), 송주(誦呪), 공양주(供養主), 인권(引勸), 별좌(別座) 등의 소임은 비구들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1769년(영조 45)에 조성된 관세음보살상 조성발원문 연화질에는 지전, 공사, 도감의 소임에 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별좌, 화주 등은 비구니들이 담당했으며, 본사질에는 비구니 20명의 명단만 기재돼 있다. 이로 볼 때 18세기 전반까지 미타사는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운영하는 사찰이었지만 그 후 비구니들이 운영하는 사찰로 변모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15 『楡岾寺本末寺誌』, 257~258쪽.

16 유근자, 「서울 옥수동 미타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의 복장유물 분석과 양식 특징」, 『불교문예연구』 17(2021), 359~361쪽.

한편 『중남산미타사약지』에는 미타사 비구니들의 법맥을 7개 계파로 구분한 「대중은파(大衆恩派)」가 실려 있다. 이 계보에는 종계, 처간, 유법, 창운 등에서 이어지는 7개 계파를 소개했다. 하지만 대중은파에 소개된 비구니 법맥은 19세기에 활동한 니승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18세기 불복장 문서에 등장하는 니승들과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오늘날 옥수동 미타사는 크게 두 개의 문중으로 구분되는데, 금수암, 칠성암, 정수암 등의 산내암자는 법기문중으로, 금보암과 용운암은 미타사 문중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가운데 법기문중의 세계도는 대중은파에서 확인되는데, 창섭-유증-봉적-치해로 이어지는 계파와 처금-의침-영침-부영-선운-자인·덕문·자현으로 이어지는 계파가 기재돼 있다.<sup>17</sup> 이에 반해 미타사 금보암과 용운암의 계보로 이루어진 미타사문중은 「대중은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2. 돌곶이승방 청량사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청량사는 돌곶이승방의 전통을 계승한 사찰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절이 조선시대 비구니사찰로 역할했음을 알려주는 사료는 기록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확인된다.

청량사는 고려전기 학자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절로 전해지는데<sup>18</sup>, 1793년(정조 17)에 의릉(懿陵)의 조포사로 지정되었다.<sup>19</sup> 『일성록』에는 “의릉 제향 때 두부를 만들고 향반을 마련하는 일은 동구 밖에 있는 청량사가 거행하고 있는데, 생활 여건이 매우 곤란하니

17 하춘생, 『한국의 비구니 문중』(서울: 해조음, 2013), 355~362쪽.

18 『高麗史』 「列傳」 諸臣; 『東國輿地志』 卷1 京都 寺刹條.

19 『承政院日記』 正祖(1793) 17년 4월 3일.

속사를 정해 주자.”는 내용이 등장한다.<sup>20</sup> 이를 통해 청량사가 조포사로 지정된 후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말에는 청량사 대신 연화사와 만수사가 의릉(懿陵)의 조포역을 담당했다.

청량사 소장 자료 가운데 조선후기 비구니 명단이 기재된 것은 「만수사신중도(萬壽寺神衆圖)」(1871)와 「천장산청량사중수기(天藏山淸涼寺重修記)」(1897)이다. 만수사는 『동국여지승람』, 『범우고』, 『한국사찰전서』에 등장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이왕직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에는 간략하게 소개돼 있다. 의릉참봉(懿陵參奉) 도진오(都鎭五)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의릉 인근에 위치한 연화사와 만수사가 조포역을 담당했다. 만수사는 속칭 돌고지승방인데, 만수사는 홍릉(洪陵, 명성황후 민씨의 능) 옛터에 있다가 능을 옮길 때에 청량사로 훼손 이거(移去)하였다.”고 기록돼 있다.<sup>21</sup>

만수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자료는 1861년경에 제작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이다. 《대동여지도》에는 지금의 홍릉터 자리에 청량사가, 현재의 입업시험장 자리에 비구니사찰(尼刹)이 표시되어 있다. 이 그림에 나타난 비구니사찰이 만수사로 추정된다.

〈만수사신중도〉에는 화주 취윤선홍(取允善弘)을 비롯해 도감, 별좌, 지전 등의 주요 소임을 모두 니승들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sup>22</sup> 이로 볼 때 신중도가 제작될 당시의 만수사는 비구니들이 운영하는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97년 명성황후의 홍릉이 청량리 부근에 조성되면서 돌곶이승방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사망한 뒤 동구릉

20 『日省錄』 純祖 13년(1813) 4월 4일.

21 『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 57~58쪽.

22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18쪽.

내 승릉 근처에 숙릉(肅陵)이라는 능호로 산릉공사를 시작했다가 고종의 아관과천으로 산릉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된 후 홍릉(洪陵)이라는 능호로 청량리에 능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만수사신중도>(1871)는 청량사가 홍릉수목원 위치에 있던 시기에, 「천장산청량사중수기」(1897)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시점에 제작된 것이다.<sup>23</sup> 그중 「천장산청량사중수기」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청량사의 중창 성료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천장산만수사법당조성발원문(天藏山萬壽寺法堂造成發願文)」(1897)에 따르면, “명성왕후의 홍릉 능지가 천장산 만수사로 정해져 법당을 청량사 옛터로 옮겨 봉안했으며, 고종이 의연금 1만 냥을 보시하여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따라서 각각 별개의 사찰로 존재하던 청룡사와 만수사가 홍릉의 조성 이후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합사되었고 절 이름은 청량사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천장산청량사중수기」에 실린 승려들의 명단은 19세기 말의 청량사가 비구니들의 독립 사찰이었음을 알려 준다. 이 현판에서 청량사의 중수에 참여한 승려들의 명단을 연화소질(蓮華所秩), 금어소질(金魚所秩), 본사질(本寺秩), 편수질(片手秩)로 나누어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비구와 비구니의 명단이 함께 실려 있다. 그런데 불사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주가 비구니 은석(銀石)이었고, 본사질에는 비구니 20명의 법명만이 기재돼 있다. 이 불사에 참여한 대다수의 비구들은 연화사 소속 승려들이었다.<sup>24</sup> 이는 19세

---

23 위의 책, 122~123쪽.

24 이 자료에서는 연화사의 승려들이 청량사의 중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중수기를 쓴 大恩頌喜는 연화사 승려였으며, 蓮華所秩에 실린 비구들 중 다른 자료에서 소속이 확인되는 인물은 모두 연화사의 승려로, 증명 비구 완허보순, 초해화진, 大恩頌喜, 沿應淇滋 등은 1910년에 제작된 연화사 괘불도, 칠성도 등의 화기에서 확인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17쪽.

기 말 청량사가 비구니사찰이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인근의 연화사, 만수사와 매우 밀접한 사찰이었음을 알려 준다.<sup>25</sup>

오늘날 청량사문중은 19세기 말 청량사의 증창을 주도했던 비구니들의 법손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천장산청량사중수기」에 수록된 채백, 원삼의 법손들은 오늘날까지 청량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량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청량사의 세계는 상길계, 묘길계, 원삼계, 해은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상길계와 묘길계는 채백(彩白)-부연(富淵)-상길(相吉)·묘길(妙吉)로 이어지는 세계이다. 채백의 만상좌인 부연은 상길, 묘길 두 상좌를 두었는데, 그중 만상좌 상길의 법계는 동희(東熙)·동근(東根)-도원(導元)·도윤(導允)·도법(導法)·자연·혜인·무진으로, 둘째 상좌 묘길의 법계는 동성(東成)·동숙(東淑)-혜전(蕙田)·혜담(蕙覃)·정관(靜觀)·혜등(慧燈)으로 이어졌다. 원삼(元三)의 세계는 혜관(惠寬)·혜명(惠明)·혜일(惠一)-법등(法燈)(혜명 상좌)과 광현(光玄)·성현(性現)·덕현(德賢)(혜일 상좌)으로, 재언의 세계는 해은(海恩)-성법(性法)으로 이어지고 있다.

### 3. 새절승방 청룡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청룡사는 새절승방이라 불린다. 청룡사 바로 옆에는 영조가 세운 정업원구기비(淨業院舊基碑)가 서있기 때문에

---

25 청량사 한주 동희 스님에 따르면, 근현대까지 청량사와 연화사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두 사찰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며, 탑골승방과도 빈번하게 교류를 맺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 볼 때 1910년대 탑골승방 미타사에서 삼성각 불화의 종두로 활동했던 사미니 妙吉과 1930년대 청량사의 불화 제작 당시 지전으로 활동했던 비구니 妙吉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은 정업원의 전통을 계승한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청룡사: 靑龍寺의 歷史와 文化』에 따르면, 청룡사는 고려초 도선 국사의 유지를 받들어 태조 왕건이 창건한 절로, 비구니 혜원(慧圓)이 후삼국 통일 위축기도를 올렸다고 전해진다.<sup>26</sup> 하지만 고려시대 청룡사의 역사를 알려 주는 사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청룡사: 靑龍寺의 歷史와 文化』에는 조선 세조 대 정순왕후가 청룡사에서 출가했다고 기술돼 있다.<sup>27</sup> 하지만 단종비 정순왕후는 창덕궁 옆에 위치해 있던 정업원에서 출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순왕후의 스승과 노사(스승의 스승), 사형 윤씨는 모두 창덕궁 부근의 정업원에서 주지를 역임했으므로 정순왕후 또한 도성 내 정업원에서 출가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28</sup>

그럼에도 청룡사가 정순왕후 및 정업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찰인 것은 분명하다. 정순왕후가 남긴 「허여문기(許與文記)」 등에 따르면, 도성 내 정업원이 연산군의 명으로 철폐된 후 정순왕후와 그 제자들은 사형 윤씨로부터 상속받은 인창방의 땅에서 정업원을 계속 운영해 갔으며, 당시 정순왕후는 스스로를 정업원주지라 칭했다. 정순왕후는 말년에 그 집의 일부는 정업원 제자들에게, 일부는 정미수에게 물려주었다. 정순왕후가 정미수와 그 부인에게 상속한 곳에는 단종의 사당이 있었는데, 정순왕후는 자신의 사후 단종의 제사를 부탁하기 위해 원래는 정업원 소유였던 가옥의 일부를 정미수 일가에게 상속했던 것이다.<sup>29</sup>

---

26 문명대, 앞의 책(2010), 143쪽.

27 위의 책, 158~168쪽.

28 탁효정, 「15~16세기 정업원의 운영실태: 새롭게 발견된 端宗妃 定順王后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2017a), 37~68쪽.

29 탁효정, 「조선시대 淨業院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 영조의 淨業院舊基碑 설치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7(2017b), 43~72쪽.

하지만 청룡사가 조선전기부터 줄곧 현재의 위치에서 유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영조가 정업원구기비를 세울 당시 승지 이정수(李廷壽)를 보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미수의 집터(정업원구기비가 들어선 자리) 주변에는 사찰은 물론 인가조차 없는 상태였다.<sup>30</sup> 청룡사가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청룡사: 靑龍寺의 歷史와 文化』에 따르면, 영조가 정업원구기비를 세운 후에 청룡사를 일신 중창하고 1771년(영조 47) 청룡사라는 사찰명 대신 정업원이라 부르도록 하교했다고 전한다.<sup>31</sup> 하지만 이 시기의 영조의 중창과 청룡사 역사를 입증할 만한 사료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비구니사찰로서의 청룡사 역사를 직접적으로 알려 주는 사료들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확인된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청룡사의 비구니 주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1868년에 제작된 불화들로, <청룡사신중도> 시주질에는 비구니 의극(義極)이 화주를, 비구니 정기(淨基)가 도감을, 비구니 영함(永咸)이 별좌를 맡았다고 기록돼 있다.<sup>32</sup> 화주부터 도감, 별좌 등의 소임을 모두 비구니가 담당한 것으로 볼 때 이 절이 비구니들의 독립사찰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불화에 기재된 비구니들의 법맥이 후대까지 전승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sup>33</sup> 1898년에 제작된 <청룡사감로도>에도 화주 비구니 응섭(應攝)과 은사 법유(法有), 노사 계종(戒宗), 상좌 사미니 재련(在蓮)이 동참한 내역이 실려 있어, 19세기 말 계종-법유-응섭-재련으로 이어지는 세계가 청룡사의 한 법맥을

30 『承政院日記』 英祖 47년(1771) 8월 28일.

31 문명대, 앞의 책(2010).

32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93쪽.

33 법기문중 3세 處金의 문과는 4대 正基·昌守-5대 祥根으로 이어진다. <청룡사신중도>(1868)와 <청룡사칠성도>(1868) 제작에 都監으로 참여한 淨基와 창수의 사형인 正基가 동일인물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법명의 한자가 달라 단정 짓기 힘들다.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법명을 여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어 현재의 청룡사 법맥과 연결 짓기 어렵다.

근현대 청룡사는 법기문중의 5세손 계흔(桂訢)의 법손들을 주축으로 운영돼 왔다. 계흔은 법기문중의 초조 대원(大願)-2세 충후-3세 처금(處金)-4세 등확(登擴)에 이어 5세대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3세 처금의 법명은 『종남산 미타사약지』에 실린 「대중은파」에서 확인되는데, 여기에는 처금의 제자로 등확 대신 의침(義沾)이 기재되었고, 의침에서 영침(永沉)-부영(扶榮)-주담(倬曇)-자인(慈仁)-정희(貞熙)로 이어지는 계보가 실려 있다.<sup>34</sup> 이로 볼 때 법기문중의 처금의 제자 중 등확의 법손들이 18~19세기경 청룡사에서 활동한 이래 계흔-창수-상근-윤호-진우·진홍 등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루어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조선후기 청룡사가 옥수동 미타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탑골승방 보문사·미타사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보문사와 미타사는 탑골승방이라 불리던 비구니사찰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동대문밖에 비구니들이 거주한다거나, 동대문밖 두 니사를 회철하자고 건의하는 내용 등이 등장한다.<sup>35</sup> 이들 기사는 후대에 탑골승방 혹은 새절승방으로 불리던 동대문 밖 비구니사찰들이 이미 조선전기부터 낙산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보문동 미타사와 보문사 일대를 탑골승방으로 칭하는 이유는 미타사에 위치한 석탑 때문으로, 고려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탑은 고려시대부터

34 『終南山彌陀寺略誌』, 31쪽.

35 『燕山君日記』 1년(1495) 11월 12일; 『中宗實錄』 3년(1508) 10월 14일; 『中宗實錄』 14년(1519) 6월 21일.

이 일대에 사찰이 들어섰음을 알려주는 증거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에 이곳에 어떤 사찰이 존재했는지를 알려주는 사료는 전무하다.

탑골승방이 비구니 공동체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경종실록』으로, 탑골의 비구니사찰에 관해 다음의 내용이 실려 있다.

한성부 판윤 심단(沈檀)이 아뢰기를,

“온수동(溫水洞)의 니사(尼舍)는 연령군방(延齡君房)에 소속시키고 탑동(塔洞)의 니사는 창의궁(彰義宮)에 소속시켜 각각 구획(界限)을 정하고, 사사(司司)로 금표(禁標)를 세워 당도(當道) 산지기(山直)로 하여금 감히 출입하지 못하게 하니, 거주하는 백성들이 남벌(濫伐)하여 조금도 꺼려하는 바가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 새로 정한 울원(栗園)을 혁파하고 연령군방과 창의궁의 사표(私標) 또한 철거하라고 명하시어, 모두 당도(當道)로 하여금 구관(句管)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지금 창시(創始)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따르지 아니하였다.<sup>36</sup>

위의 기사에 등장하는 탑동의 니사는 오늘날의 보문사와 미타사 일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탑동의 니사가 소속된 창의궁은 연잉군, 즉 영조의 잠저시절 궁가이다. 창의궁에서 탑동 비구니사찰 주변에 금표를 세우고 산지기로 하여금 잡인들의 출입을 엄금한 것으로 볼 때, 탑골승방이 연잉군의 관할 하에 있었고 창의궁의 원당으로 역할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조선후기에 유행하던 왕실원당을 통한 내탕금 확보 및 절수의 목적이었는지, 연잉군가의 불사와 관련 있는지의 여부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탑골승방

36 『景宗實錄』 2년(1722) 3월 26일.

의 비구니사찰이 영조의 잠저 시절 창의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1) 보문사

권상로가 지은 「보문사일신건축기(普門寺一新建築記)」(1962)에는 보문사를 고려시대 1115년 담진국사(曇眞國師)가 창건했다고 전하나<sup>37</sup> 고려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의 보문사의 역사를 알려 주는 1차 사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조선전기에 동대문 밖에 니사들이 있다는 기록과 『경종실록』의 탑동 니사 기사를 통해 탑골승방 일대에 비구니들이 거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문사 관련 기록 가운데 비구니들의 거주 사실을 알려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대웅전 중수 상량문들이다. 2021년에 보문사 대웅전 지붕을 수리하던 중 발견된 「한양성회 동부 삼각산 보문사 극락보전 중수상량문(漢陽城外東部三角山普門寺極樂寶殿重修上樑文)」(1824)에는 산중노덕(山中老德)과 화주, 별공, 별좌, 도감에 모두 비구니들의 범명이 기재돼 있으며, 이와 함께 발견된 1865년 시주질에도 화주부터 별좌, 공양주, 도감에 이르기까지 비구니들이 소임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sup>38</sup>

보문사에는 대웅전 상량문 외에도 1865년 불사와 관련된 다수의 자료들이 남아 있다. 보문사 대웅전에 걸려 있는 1865년 「한양동 삼각산 보문사 법당 중건 대시주」 현판에는 고종과 명성황후, 대왕대비 조씨(신정왕후),

37 권상로, 『韓國寺刹事典 上』(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4), 733쪽.

38 보문사 대웅전 지붕에서는 「乾隆十二年丁卯五月初一日庚寅日」(1747), 「漢陽城外東部三角山普門寺極樂寶殿重修上樑」(1824), 「大清東治四年乙丑三月初四日午時」(1864) 등 3점의 상량문과 불사 동참자 명단 시주질, 상평통보 주화 100점, 복장다라니 등이 발견되었다. 상량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작성된 건륭12년 상량문(1747)에는 비구들의 명단만 기재돼 있으며, 1824년과 1864년 상량문에는 비구니들의 명단이 확인된다.

홍씨, 대비 김씨 경빈, 신정왕후의 부친인 풍은부원군 조만영 등 왕실 구성원들의 명단이 시주자로 기재돼 있다. 또한 「동참위천대시주(同參爲薦大施主)」 현판에는 유봉 등 33명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돼 있는데, 여기에 실린 비구니들이 주로 1850~1860년대 보문사에서 활동하던 승려들이므로 미루어 「한양동 삼각산 보문사 법당 중건 대시주」 현판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39</sup> 또한 1867년에 제작된 「보문사 극락전 영산회상도」 산중질에는 32명의 비구니 명단이 실려 있고 같은 해에 제작된 「보문사 묘승전 지장시왕도」에는 5명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돼 있다. 이 기록들은 19세기 전반부터 보문사가 비구니 중심의 사찰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영산회상도 산중질에 비구니들의 명단만 실려 있어 당시 보문사가 비구니들의 독립 사찰로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문사는 1911년 사찰령 반포 이후 용주사의 말사로 등록되었다가 1972년 보문사의 승려 공탄, 은영 등이 세계 유일의 비구니종단 대한불교보문종을 창종하면서 보문종 총본산이 되었다. 현재 보문종은 공탄의 세계를 계승하는 문도와 계민문종의 명주(明珠)·일조(日照)·혜안(慧眼)·혜일(慧日)·지환(智環) 등의 세계를 잇고 있는 문도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sup>40</sup>

보문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공탄의 세계는 묘첨(妙瞻)·금훈(錦訓)·유봉(有奉)·보찬(普讚)<sup>41</sup>·정운(正雲)·세장(世章)·공탄(巨坦)·은영(恩榮)·법준(法俊)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통도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의 화기에는 묘첨보다 1세대 앞선 각신(覺信)과 그의 상좌, 손상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유봉과 보찬이 은사인 묘첨과 노승사인 각신의 명복을 빌기 위해 시주를

39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53쪽.

40 하춘생, 앞의 책(2013), 245~254쪽.

41 보찬의 법명은 통도사 관음전 觀音菩薩圖(1858)에는 普贊으로, 보문사 대웅전 同參爲薦大施主懸板(1865 추정)에는 普讚으로, 보문사 비구니 세계도에는 普讚으로 기재되었다.

한 내역이 실려 있다.<sup>42</sup> 이를 통해 보문사에서 전해지는 세계보다 한 세대 앞선 각신이 묘첩의 스승임을 확인할 수 있다.

## 2) 보문동 미타사

탑골승방으로 일컬어지는 또 한 곳의 사찰 보문동 미타사는 사찰령 반포 당시 용주사의 말사로 등록되었다.

미타사가 언제부터 미타사라는 절 이름으로 불렸는지 알 수 없지만 1873년과 1874년에 제작된 아미타회상도, 신중도, 지장시왕도, 칠성도 등의 불화에 미타사의 명칭이 실려 있다. 또한 이들 화기에는 화주, 지전, 별좌, 다각 등 불사의 주요 소임을 비구니들이 전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19세기 후반 미타사가 비구니들의 독립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불화에 실린 비구니들의 계보나 여타 활동은 확인할 수 없다.

오늘날 보문동 미타사를 이끄는 문중은 탑골문중이라 불리는데, 경삼(敬三)-유명(有明)-지순(芝順)-원호(元胡)-보명(寶明)·송현·나현의 세계로 이어진다.<sup>43</sup> 탑골문중의 초조인 경삼과 2세 유명, 3세 지수의 법명은 1915년

---

42 「통도사 관음전 관음보살도」 화기에는 유봉이 속가 부모인 亡夫 淸信士 金授記, 亡母 淸信女 金氏 見佛華와 숙부·숙모 등을 追薦한 내역이 실려 있다. 유봉의 속가부모 이름은 보문사 同參爲薦大施主(1865년 제작 추정)에도 실렸는데, 여기에도 모친의 법명을 亡母 淸信女 金氏 見佛華라고 기재하였다.(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남 자료집 II』(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3b), 298쪽 참조.) 따라서 통도사 관음전 관음보살도의 시주자 유봉과 보문사에서 활동한 유봉은 동일 인물임이 확실하다. 유봉은 1860년대 보문사의 불사뿐만 아니라 봉은사, 흥천사의 불사에도 화주 또는 시주자로 수차례 참여했다. 유봉의 법명은 대부분 有奉으로 기재되었지만 보문사에 전해지는 세계와 보문사 대응 전 동치4년 상량문(1865)에는 有奉으로 기재되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53쪽.

43 하춘생, 앞의 책(2013), 263쪽.

미타사 삼성각 산신도와 독성도부터 확인된다. 또한 1918년 미타사 대웅전 감로도화와 1931년 미타사 대웅전 현왕도에는 경삼이 주지로 기재돼 있다.<sup>44</sup> 이로 볼 때 오늘날 탑골문중의 세계는 1910년대 미타사에서 활동한 경삼과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말에 활동한 묘의, 범림, 원묘 등의 범명은 탑골문중의 세계나 여타의 자료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

탑골승방 또는 탑동의 니사로 불리던 보문사와 미타사가 언제부터 각각의 사찰로 분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865년경 보문사 대웅전 중창 공사 당시 지전으로 참여했던 사미니 원교(圓敎)가 1874년 미타사 삼성각 칠성도 제작 당시 공사(供司) 비구니로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sup>45</sup> 두 절이 각각 보문사와 미타사로 독립한 이후에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 5. 그 외 비구니 활동이 확인되는 사찰

### 1) 진관사

진관사의 자료 가운데 조선시대 비구니들의 명단이 확인되는 유일한 기록은 <삼각산 진관사 향적암 산신도>이다. 현재 영천 용화사(龍華寺)에 소장돼 있는 이 불화의 화기에는 “광서(光緒) 18년 임오년 정월 26일 삼각산 진관사 향적암 봉안”이라고 명시돼 있어 원 소장처가 서울 진관사 향적암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산신도의 연화질에는 화주 비구니 인형(仁亨)과 비구니 계전(桂典)을 비롯해 총 7명의 비구니 범명이 기재돼 있다.<sup>46</sup>

44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49쪽.

45 위의 책, 149~153쪽.

46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보강편 자료집』(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4), 247쪽.

오늘날 진관사는 서울 강북 지역을 대표하는 비구니사찰로 역할하고 있지만, 근대까지 진관사는 비구 중심의 사찰로 유지되었다. 진관사는 서오릉과 인접한 까닭에 서오릉의 창릉과 홍릉의 조포 역을 담당했는데 이는 진관사 본찰이 비구 사찰로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진관사 향적암 산신도」 화기의 주요 소임은 비구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비구와 비구니들이 동참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불사의 주축인 화주 인형과 계전이 모두 비구니이고 종두, 별좌, 별공 등 실무도 비구니들이 담당했다. 이 불화의 기록만으로 진관사의 부속암자였던 향적암이 비구니들의 독립된 거주공간으로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사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화주 2명이 모두 비구니였고 별좌 및 별공 등의 실무를 비구니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향적암이 진관사 내에서 비구니들의 독립된 암자로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 2) 봉은사

봉은사에 남아 있는 불화의 연화질과 현판 명문 등에는 다수의 비구니 명단이 기재돼 있다. 1765년 「봉은사목석가불좌상(奉恩寺木釋迦佛坐像)」 복장문 등에는 총 37명의 니승 법명이 기재돼 있다.

그런데 이들 니승의 명단만으로는 봉은사가 비구니사찰이었다거나 봉은사 내에 비구니암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봉은사는 조선전기부터 선정릉의 능침사로 역할하면서 비구 중심의 사찰로 운영되었다. 또한 1765년 봉은사 석가불좌상 불사에 동연화주로 참여한 사신, 문화, 조명 등 3명의 비구니는 모두 옥수동 미타사에서 활동하던 승려였고, 1856년 「화엄전판전신건기」에 실린 유봉은 보문사의 승려였으며, 치해 등은 옥수동 미타사 승려였다. 또한 1850년대 화엄전을 상량할 당시에 참여한 니승들도

옥수동 미타사와 보문사에 소속된 승려들이었다.

봉은사 부속암자 가운데 비구니암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남아 있는 니승 명단 상으로는 서울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봉은사의 불사에 서울 지역 비구니들이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 3) 수국사

수국사의 니승 명단은 1908년에 제작된 〈수국사 괘불도〉 대시주질과 「수국사 괘불탱화 금강변 불사기(守國寺掛佛幀畫金剛幡佛事記)에 등장한다. 〈수국사 괘불도〉 대시주질에는 묘윤(妙允), 운문(雲門), 정하(定荷), 치해(致海), 현국(玄國)이, 불사기에는 정하를 제외한 4명의 법명이 중복되어 등장한다.<sup>47</sup>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은 국가와 황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수국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황실원당으로 삼았다. 이때 제작된 불화의 화기와 불사기에 동참 비구니들의 명단이 실린 것이다.

그중 치해, 정하, 현국은 옥수동 미타사의 비구니였고, 정하와 운문 또한 미타사 비구니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는 수국사에서 비구니가 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다.

따라서 대한제국 황실이 주도한 불사에 옥수동 미타사의 승려들이 시주자로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 4) 흥천사

흥천사에 남아 있는 「경기우도양주목지삼각산흥천사료사중창기문헌판」(1870)에는 비구니로는 유일하게 유봉(宥奉)이 대시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중창기에 화주로 기재된 유봉은 보문사 대웅전 중창

---

47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70쪽.

불사와 묘승전과 극락전 불화 제작의 화주로 활동하고, 봉은사 화엄전 불사(1856) 및 봉은사 관전 불사(1857)에 참여한 유봉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흥천사에 비구니들이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흥천사와 인접해있는 보문사의 비구니 유봉이 흥천사 불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 IV.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특징

##### 1. 왕실과 밀접한 관계 유지

조선시대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들은 왕실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1475년(성종 6) 성종 대 한성부에서는 도성 안팎의 니사(尼舍) 23곳 중 20곳을 철거했다.<sup>48</sup> 하지만 연산군 대에 이르러 또다시 숭례문과 흥인문 밖에 비구니사찰이 들어섰고, 왕실의 비호 하에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연산군일기』에는 사헌부 집의 정인인(鄭麟仁)이 “근래 니사(尼社)의 창건이 근래에 더욱 많아져 숭례문과 흥인문 밖에 거의 빈 땅이 없으므로 본부에서 금하려고 하면, 모두 ‘왕후(王后)의 시녀들 원당(願堂)’이라고 합니다. 전일 예조에서 전교를 받아 한성부로 하여금 적발하게 했는데도 또한 ‘왕후의 시녀들 원당은 금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다.’ 하여, 법의 시행되지 않음이 도성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일체 엄중하게 금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한 내용이 등장한다.<sup>49</sup> 이 기사는 조선전기부터 도성 안팎의 비구

48 『成宗實錄』 6년(1475) 7월 19일.

49 『燕山君日記』 8년(1502) 5월 12일.

니사찰들이 왕실 및 궁중 여관들의 기도처로 역할했음을 알려준다.

1661년(현종 2) 인수원과 자수원이 철폐된 이후 조정 신료들은 도성 밖의 비구니사찰 철거를 요청했다. 『숙종실록』에는 “여승의 무리가 도성 밖에 가까이 머물면서 높은 누각을 새로 지었는데, 금벽(金碧)이 영롱(玲瓏)하며, 수진궁(壽進宮)에서 세운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심지어 성비(聖妃)의 기일에도 초제(醮祭) 지내는 일을 크게 베풀면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꺼려함이 없다고 하니 … 내사(內司)와 각궁(各宮)을 엄하게 신칙하시어 초제를 지내는 일을 일체 금하도록 해서 폐습을 제거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온다.<sup>50</sup> 하지만 숙종은 “자전(慈殿)께서 일찍이 ‘도성 안의 것은 비록 더러 험하게 되더라도 도성 밖의 것은 반드시 험 것이 없다.’고 분부하셨다.”며 니사의 훼손 요청을 거부했다.<sup>51</sup> 이 기사는 조선후기에도 명성왕후를 비롯한 왕실의 비빈들이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외호 역할을 자처했음을 보여준다.

조선 왕실과 사승방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은 18세기부터 확인되는데, 1707년 옥수동 미타사 아미타불상 조성발원문에는 대시주자가 상궁 김귀업(金貴業)이며 숙종과 인원왕후, 세자(경종)와 세자빈(단의왕후)의 만수무강을 발원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1744년 목조아미타불 좌상 중수발원문, 1757년 아미타불, 관음보살상, 미타원불 조성발원문에도 상궁들이 대시주로 참여했다. 1862년(철종 13) 미타사 중수 때는 신정왕후가 시주로 참여했다.<sup>52</sup>

탑골승방 또한 조선 말까지 조선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8세기 전반 탑동의 니사들이 연잉군의 원당으로 역할한 데 이어, 19세기

50 『肅宗實錄』 23년(1697) 1월 12일.

51 『肅宗實錄』 35년(1709) 8월 20일.

52 『終南山彌陀寺略誌』, 3쪽.

보문사 불사에 왕실 구성원들이 시주자로 빈번하게 참여했다. 특히 보문사 법당 중건 대시주 현판과 대웅전 상량문에는 1865년 대웅전 중수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 익종비 신정왕후, 현종비 효정왕후, 현종의 후궁 경빈 김씨, 풍은부원군 조만영과 부인 송씨 등 왕실 친인척들이 대거 동참한 내역이 남아 있다.

청룡사는 단종비 정순왕후가 정업원 주지를 역임할 당시에 살던 집터에 세워진 절이다. 연산군이 창덕궁 인근의 정업원을 철폐하고 비구니들을 내쫓자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를 비롯한 정업원의 비구니들은 인창방에 있던 정업원 소유의 땅에서 정업원을 유지해 갔다. 이후 영조는 그곳에 정순왕후를 추모하는 정업원구기비를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석 옆에 청룡사가 들어섰다. 청룡사가 언제부터 현재의 위치에 세워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절이 정순왕후 및 그 법손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인 것만은 분명하다. 청룡사는 순조비 순원왕후의 기도처로 역할했으며, 일제강점기까지 고종의 후궁 광화당 이씨, 삼축당 김씨가 청룡사에 보시를 하며 교류를 이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청량사는 1897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할 당시 고종의 의연금(義捐金) 1만 냥을 보시받아 불사가 이루어졌다.<sup>53</sup>

이처럼 서울 지역의 비구니사찰들은 조선시대 내내 왕실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보호하에 왕실의 축원 기도처로 역할하며 관계를 이어 나갔다.

## 2. 도성 밖 4승방 중심의 전통

조선후기 사료에 등장하는 426명의 니승 명단 가운데 377명이 도성 밖 4승방에 소속된 승려였다. 이는 서울 지역 비구니승가가 4승방을 중심으

---

53 伽山智冠, 「서울清涼里天藏山清涼寺事蹟」(2003).

로 유지되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조선왕조는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지했고, 이 조치는 1895년(고종 32) 승려들의 도성 출입 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도성 주변의 사찰 운영을 막기 위해 1475년(성종 6) 도성 안팎의 20여개 비구니사찰을 철거했다.<sup>54</sup> 이러한 국가적 조치와는 별개로 도성 안에 위치한 정업원·안일원 등의 왕실 비구니사찰은 현종 대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왕조 내내 왕실의 불교신앙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신행을 보조해 줄 사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왕실의 정치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하에 정업원은 도성 안에서도 창덕궁과 거의 인접한 곳에서 약 250여 년간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1661년(현종 2) 왕실 비구니사찰로 역할하던 자수원과 인수원이 철폐되면서 도성 안의 비구니사찰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 후 비구니들은 도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 군락을 이루며 비구니 공동체를 유지했다. 여러 비구니 사찰과 암자가 한 지역에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를 비구니승방이라고 불렀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구니 4승방'으로 일컬어지는 두룻개승방, 새절승방, 탑골승방, 돌곶이승방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의 비구니사찰은 성종 대 20개 비구니 사찰의 훼손 이후 청룡사, 청량사, 보문사, 미타사 등 4개 사찰만 남게 되었고, 그 후부터 4승방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져 왔다.<sup>55</sup> 현재 사료상에 기재된 비구니 법명과 소속사찰의 기록들은 4승방과 관련된 전승 내용이 단순한 구전 설화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426명의 니승 명단 상으로 볼 때 비구니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사찰과 암자는 청룡사, 청량사, 옥수동 미타사,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진관사 향적암에 국한되며, 봉은사와 수국사, 흥천사 화기에 기재된 니승들은 대부분 4승방에 소속된 비구니

54 『成宗實錄』 6년(1475) 7월 19일.

55 김응철, 앞의 논문(1999), 70~73쪽.

들이었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에 단 5곳의 비구니 사찰과 1곳의 암자만이 존재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상으로 볼 때 도성 밖 4승방이 서울 지역 비구니승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조선후기와 근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비구니 법맥을 전승해 온 주역인 것만은 분명하다.

### 3. 금강산과 지속적 교류

조선후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울 지역 비구니들은 금강산과 상당히 밀접한 교류를 맺어 왔다. 조선시대 금강산은 역대 고승과 비구니 수좌들을 배출한 조선불교의 요람으로 일컬어져 왔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11개의 비구니 법맥 가운데 법기문중과 봉래문중, 보운문중이 금강산 수행 전통을 표방하고 있으며, 근대기에 활동한 상당수의 비구니들이 금강산 사찰에서 수행한 이력을 밝혀 왔다는 점은 금강산이 비구니들에게 중요한 구도처이자 교육과 참선, 수계의 장으로 인식돼 왔음을 시사한다.

금강산에서 확인되는 최초의 서울 지역 비구니는 옥수동 미타사의 사신이다. 「낙암당니수좌사신지부도비」에 따르면, 종남산 동쪽 기슭에서 사신의 다비 의식을 치렀는데 영골 사리 1과를 얻어 금강산 동쪽 신계사 아래에 봉안했다.<sup>56</sup> 미타사에서 활동하던 비구니의 부도탑이 신계사 기슭에 조성되고, 그 내용이 「신계사지」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미타사와 신계사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사신의 뒤를 이어 미타사를 지켜 온 비구니들은 오늘날까지도 금강산의

---

56 『楡岾寺本末寺誌』, 257~258쪽.

수행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표방하고 있다. 옥수동 미타사에서 주요 법맥을 이루고 있는 법기문중은 금강산 신계사 법기암 출신 문도의 결집에서 유래하는 비구니문중이다. 초조인 대원과 2대 충휴, 3대 처금, 창섬과 그 후손들이 금강산에서 각고정진하며 수행해 왔다는 사실에 의거해 법기문중으로 명명한 것이다.<sup>57</sup> 또한 옥수동 미타사뿐만 아니라 오늘날 청룡사의 주축을 이루는 승려들도 법기문중의 법손임을 표방하고 있다. 근현대 청룡사의 중창주인 홍상근은 금강산에 헌답기가 세워질 정도로 많은 시주를 했던 대화주였다. 상근의 활동은 「청룡사지」보다 『유점사본말사지』에서 더 상세하게 나타나는데, 조선 말~근대 초에 금강산에 활동한 상근은 유점사에 쌀 300두를 보시해 경회(經會)를 유지시키고, 장안사 안양암 중건에 동참, 마하연과 유점사에 전답을 기부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sup>58</sup> 이러한 선대 비구니들의 활동으로 인해 옥수동 미타사와 청룡사에서 활동해 온 니승들은 오늘날까지 금강산 수행 전통을 문중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장안사의 하관음암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보문암으로 불렸는데, 이는 관음암을 중창한 주역들이 탑골승방 보문사 출신 비구니들이었기 때문이다. 중관음암과 하관음암의 중창주인 치율은 보문사 출신의 비구니로, 관음암 중창의 공덕을 인정받아 불랑헌납비가 세워졌다.<sup>59</sup> 치율은 1865년 보문사 중창 당시 제자들과 함께 보문사에 시주금을 헌납하며 보문사와의 인연을 이어 나갔다.<sup>60</sup> 대한불교보문종의 초대종정을 역임한 공탄은 장안사에서 사미니계를 수계하고, 이후 금강산에서 여러 차례 안거를 보냈다. 이러한 사례들은 조선말~근대까지 보문사의 니승들이 금강산 장안사 내에 비구니 수행처를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맺어 왔음을 보여준다.

57 하춘생, 앞의 책(2013), 147쪽.

58 『楡岾寺本末寺誌』, 13쪽, 26쪽, 147쪽, 304~341쪽 외 다수.

59 『楡岾寺本末寺誌』, 362~363쪽.

60 불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2013a), 153쪽.

이처럼 18세기~20세기 전반 자료들에 나타나는 비구니들의 수행, 불사, 수계의 이력은 금강산과 서울 지역 비구니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조선 말~근대의 서울 지역 비구니들이 금강산에서 수계를 받거나 안거를 지내는 전통으로 계속 이어졌다.

#### 4. 18~19세기부터 독자적인 사찰 운영

서울 지역의 비구니사찰, 특히 4승방으로 일컬어지는 옥수동 미타사, 청룡사,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옥수동 미타사, 청량사 등은 적어도 18~19세기경에 비구니들의 독자적인 승가공동체를 이루었다. 『조선왕조실록』 등의 관찬사료에는 이미 조선전기부터 동대문과 남대문 밖에 비구니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지만 이 시기 비구니사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들이 거의 없어 구체적인 활동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옥수동 미타사는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비구니 중심의 사찰로 운영된 것이 확인되며, 보문사는 19세기 중반, 청룡사와 보문동 미타사는 19세기 후반부터 비구니들의 독자적인 운영이 나타난다. 청량사는 만수사의 명맥을 이어 비구니승가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만수사는 적어도 19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비구니사찰로 역할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비구니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불사의 실무를 많이 담당했던 것이 특징이다. 금강산과 경기 서북부에 남아 있는 중수기에는 비구니가 화주 또는 시주로 역할하고 도감과 같은 공사의 실무는 인근 사찰의 비구들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sup>61</sup> 이에 반해 서울 지역의 비구니사찰에는

---

61 탁효정,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불교학연구』 70(2022a), 48~49쪽; 탁효정,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불교학』 103(2022b), 142쪽.

비구니가 화주뿐만 아니라 도감, 별좌 등 불사의 실무적인 역할들을 다양하게 담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사찰의 운영 형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금강산 등에서는 비구니 거주지가 비구사찰에 딸린 부속 암자의 형태로 유지되었던 반면 서울 지역은 비구니들만의 독자적인 사찰로 유지되었다. 그로 인해 서울 지역 비구니들이 불사의 기획, 현장감독, 자재 구입 및 관리 등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비구니 426명의 명단을 토대로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니승 426명의 활동 사찰은 총 8개로, 독자적인 비구니사찰로 운영된 절은 옥수동 미타사와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청량사, 청룡사 등 총 5곳이고, 사찰 내 비구니 부속암자로 운영된 곳은 진관사 향적암이 유일하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특징은 총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후기 서울 지역의 비구니사찰들은 왕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탑골승방은 경종 대부터 연잉군방에 소속되어 왕실원당으로 보호 관리되었으며, 보문사는 조선 말까지 왕실의 시주를 받아 대대적인 중창 불사를 진행했다. 옥수동 미타사 또한 숙종 대 왕실의 축원당으로 역할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선 말까지도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갔다. 청량사는 현재의 위치로 이건설 당시 고종의 의연금 1만 냥을 지원받았다. 이들 서울의 비구니사찰은 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왕실의 기도처로 역할하며 왕비, 후궁, 상궁들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 나갔다.

둘째, 조선후기 비구니들의 활동이 도성 밖 4승방으로 알려져 있는 두뫇개승방, 새절승방, 탑골승방, 돌곶이승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두뫇개승방은 오늘날 옥수동 미타사로, 새절승방은 청룡사로, 탑골승방은 보문동 미타사와 보문사로, 돌곶이승방은 청량사로 계승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료들에 따르면 서울 지역 비구니들은 대부분 네 곳의 승방에 소속돼 있었으며, 봉은사나 홍천사, 수국사 등의 대찰에서 불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화주 또는 시주자로 적극 참여했다.

셋째, 조선후기 서울의 비구니들은 금강산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으며, 금강산 수행 전통을 이어 갔다. 서울 지역 비구니들은 금강산의 유명한 수행처의 중창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하거나 비구니들을 위한 수행처 재건에 적극 앞장섰다. 또한 서울 지역의 비구니들이 안거를 나거나 수계를 받는 등 수행, 교육의 장으로 금강산을 적극 활용했고, 근현대까지 스스로 금강산에서 수행한 이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워 왔다. 이러한 비구니들의 활동은 금강산 관련 여러 기록들에 남아 있으며, 오늘날 11개의 비구니 문중 가운데 3개의 문중이 금강산 수행 전통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조선불교의 요람이라 일컬어지던 금강산이 비구니들에게도 중요한 수행처였음을 알려준다.

넷째,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은 18~19세기부터 비구니 중심의 승가공동체를 운영했다. 현재 남아 있는 사료들이 대부분 18~19세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17세기 이전의 사찰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18~19세기 중반경에 이르면 비구니 독립 사찰 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高麗史』. 『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志』. 『奉恩本末誌』. 『楡岾寺本末寺誌』. 『終南山彌陀寺略誌』.  
「乾隆十二年丁卯五月初一日庚寅日」, 1747.  
「大清東治四年乙丑三月初四日午時」, 1864.  
「漢陽城外東部三角山普門寺極樂寶殿重修上樑」, 1824.  
《大東輿地圖》.

### 2. 단행본

- 권상로, 『韓國寺刹事典 上』. 서울: 이화문화출판사, 1994.  
문명대, 『청룡사: 靑龍寺의 歷史와 文化』. 서울: 청룡사·(사)한국미술사연구소, 2010.  
문명대·김창균·이강근·최응천·한지연·유근자·김현정·주수완·오진희·조수연·박선영·김성희·한민주·권희선·문아리, 『朝鮮時代 記錄文化財 資料』. 서울: 韓國美術史研究所, 2013.  
미타사 정보문화재 보존위원회, 『彌陀寺 정보문화재 조사보고서』.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2020.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경남 자료집 II』. 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3a.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서울특별시 자료집』. 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3b.  
\_\_\_\_\_,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 보강편 자료집』. 서울: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14.  
송천스님·이종수·허상호·김정민(편저), 『韓國의 佛畫 畫記集』. 서울: 정보문화재연구원, 2011.  
유근자, 『조선시대 왕실발원 불상의 연구』. 서울: 불광출판사, 2022.  
하춘생, 『한국의 비구니 문중』. 서울: 해조음, 2013.

### 3. 논문

- 김응철, 「정업원과 사승방의 역사로 본 한국의 비구니 승가」. 『전통과 현대』 1999 봄호, 70~85쪽.
- 유경희, 「종남산 미타사 극락전 불화를 통해 본 19세기 원당의 불화」. 『강좌미술사』 59, 2022, 195~224쪽.
- 유근자, 「서울 옥수동 미타사 아미타삼존불좌상의 복장 유물 분석과 양식 특징」. 『불교문예연구』 17, 2021, 339~384쪽.
- 탁효정, 「15~16세기 정업원의 운영실태: 새롭게 발견된 端宗妃 定順王后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82, 2017a, 37~68쪽.
- \_\_\_\_\_, 「조선시대 淨業院의 위치에 관한 재검토: 영조의 淨業院舊基碑 설치를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97, 2017b, 43~72쪽.
- \_\_\_\_\_, 「조선후기 금강산 일대의 비구니 암자와 비구니의 활동」. 『불교학연구』 70, 2022a, 25~58쪽.
- \_\_\_\_\_, 「조선후기 경기 서북부 일대 비구니 사찰과 비구니의 활동」. 『한국불교학』 103, 2022b, 133~165쪽.
- 편나영·박윤미, 「옥수동 미타사 극락전 아미타삼존불상 복장직물의 특성」. 『禪文化研究』 34, 2023, 245~284쪽.

### 4. 기타

- 伽山智冠, 「서울 淸涼里天藏山淸涼寺事蹟」, 2003.
- 대한불교진홍원, 《多寶》, 불기 2538년 여름호(1994)~불기 2539년 가을호(1995).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비구니 426명의 명단을 토대로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분포와 특징을 고찰한 연구이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에서 활동한 니승 426명의 활동사찰은 총 8개로, 옥수동 미타사 234명, 보문동 미타사 12명, 보문사 85명, 봉은사 37명, 청량사 27명, 청룡사 14명, 수국사 9명, 진관사 7명, 흥천사 1명이다. 이들의 명단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독자적인 비구니사찰로 운영된 사찰은 옥수동 미타사와 보문동 미타사, 보문사, 청량사, 청룡사 등 총 5곳이며, 진관사 향적암은 진관사 내에서 독자적인 비구니암자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의 특징은 총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조선후기 서울 지역의 비구니사찰들은 왕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둘째, 조선후기 서울의 비구니들은 금강산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어왔으며, 근현대까지 금강산의 수행 전통을 계승했음을 표방해 오고 있다. 셋째, 조선후기 비구니들의 활동은 도성 밖 4승방으로 알려져 있는 두뭇개승방, 새절승방, 탑골승방, 돌곶이승방에 집중돼 있다. 두뭇개승방은 오늘날 옥수동 미타사로, 새절승방은 청룡사로, 탑골승방은 보문동 미타사와 보문사로, 돌곶이승방은 청량사로 계승되고 있다. 넷째, 서울 지역 비구니사찰은 18~19세기부터 독자적인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료의 한계로 17세기 이전의 사찰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18세기경에 이르면 비구니들의 독자적인 사찰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투고일 2023. 9. 20.

심사일 2023. 10. 26.

게재 확정일 2023. 11. 9.

주제어(keywords) 비구니(bhikkhuni), 여승(Female Monk), 조선(Joseon), 불교(Buddhism), 사찰(temple)

## Abstract

###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Bhikkhuni Temples in Seoul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Tak, Hyo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distribution and characteristics of bhikkhuni temples in Seoul based on a list of 426 bhikkhuni temple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There were eight active temples for the 426 bhikkhuni active in the Seoul area in the late Joseon period: 234 at the Mita Temple in Oksu-dong; 12 at the Mita Temple in Bomun-dong; 85 at the Bomun Temple; 37 at the Bongeun Temple; 27 at the Cheongnyang Temple; 14 at the Cheongryong Temple; nine at the Suguk Temple; seven at the Jingwan Temple, and one at the Heungcheon Templ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is list revealed that five temples were operated as independent bhikkhuni temples, including the Mita Temple in Oksu-dong, Mita Temple in Bomun-dong, Bomun Temple, Cheongnyangsa Temple, and Cheongnyongsa Temple. The Jingwan Temple Hyanghyangam is presumed to have been operated as an independent bhikkhuni hermitage within the Jingwan Templ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hikkhuni temples in the Seoul area in the late Joseon period can be divided in four categories. First, the bhikkhuni temples in the Seoul area in the late Joseon period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the royal family. Second, the bhikkhuni in Seoul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had continuous exchanges with Mt. Geumgang, and claimed to have inherited Mt. Geumgang's tradition of practice until modern times. Third, the activities of the bhikkhuni in the late Joseon period were concentrated in the four monasteries outside the capital: the Dumutgaeseungbang, Saejeolseungbang, Tapgolseungbang, and Dolgojiseungbang. Currently, the Dumutgaeseungbang is inherited as the Mita Temple in Oksu-dong, Saejeolseungbang is inherited as the Cheongnyong Temple, Tapgolseungbang is inherited as the Mita and Bomun Temple in Bomun-dong, and Dolgojiseungbang is inherited as the Cheongnyang Temple. Fourth, the bhikkhuni temples in the Seoul area maintained their own monastic communities from the 18th to 19th centuries.

Althoug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actual status of temple operation before the 17th century because of scarcity of historical materials, it can be confirmed that Buddhist bhikkhuni independently operated the temple at least as early as the 18th century.

